

# 내년 여수항 국제크루즈 올해보다 2배 더 온다

### 8척 이상 입항 예고...1만5천여명 해외 관광객 유치 市, 무료 셔틀버스·문화관광해설사 등 행정 지원 확대

내년 여수항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제크루즈 8척 이상이 내년 여수항 입항을 확정하며, 1만5천여명에 달하는 해외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입항 예정 선박은 노르웨이인 크루즈 라인의 '노르웨이인 스키아호', 일본 MOL사의 '미즈이 오션 후지호', 코스타 크루즈의 '코스타 세레나호' 등으로 여수항에 처음 입항하는 크루즈가 주를 이룬다.

이는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크루즈 관련 박람회 등 적극적인 국제크루즈 유치 활동의 결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박 입항 금지 조치가 해제된 2023년 이후 가장 많은 입항 횟수다.

여수시는 단체관광에서 개별 자유 관광으로 변화하는 크루즈 기항 관광 추세에 맞춰 입항 환영 공연, 주요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 운영, 문화관광해설사·통역 인력 배치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항지 포트세일즈와 크루즈 관계자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여수항을 홍보하고, 특색 있는 기항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국제크루즈 유치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크루즈터미널 신축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하드웨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크루즈터미널인 여수엑스포여객선 터미널은 국내 5대 기항지 중 유일하게



여수시립국악단이 지난 10월9일 프랑스 폰네포(Ponant)사의 국제크루즈선 '르 솔레일(Le Soleil)'호의 여수항 입항을 환영하는 취타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입항객 출·입국 동선이 미분리된 터미널로, 입국과 출국 시간대에 맞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과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에 비해 봤을 때 합실의 규모도 작은 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항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기항지로서 여러 국제크루즈 선사로부터 선택받고 있어 크루즈의 순조로운 입항을 위해 수용 태세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에 여수를 알리고, 고부가가치 기항 관

광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질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외래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여수항은 크루즈 시장 잠재력 지수가

제주항에 이어 높았다. 향후 3년 내 한국 지방별 의향 80.5%, 크루즈 목적지로 추천 의향 82.9% 등 국내 5대 기항지 중 가장 높게 평가받으며 기항지로서의 잠재력을 확인받은 바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정인화 광양시장, 산타로 깜짝 변신 “웃음·감동 선사”

### 광양예술창고서 동화 읽기부터 트리 장식까지

정인화 광양시장이 산타로 변신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열어 따뜻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사했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예술창고에서 7세 어린이 80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타고 온 산타'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의 첫 순서에서는 김민준 어린이가 '누가 산타에게 선물을 준 걸까' 책을 읽고, 가수 김현철씨의 키즈팝 앨범에 수록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노래를 불렀다. 이어 산타 복장을 한 정인화 시장이 김재이 어린이와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 있어?' 도서를 함께 읽는 순서가 진행됐다.

해당 도서는 어린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동화책으로, 정인화 시장이 '산타를 믿는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고 싶은 아빠' 역

할을 맡고 김재이 어린이가 '산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아이' 역할을 맡아 행사를 찾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

행사에는 앙상블 클래식 공연에 맞춰 동요 부르기, 일일 산타로 나선 정인화 시장과 함께 오너먼트를 만들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기, 캐리커처 키링 만들기 등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어린이들은 물론 참여한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어린이가 산타 턱수염을 검정색으로 바꿔주며 내년에도 산타가 다시 찾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은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줘 현장을 행복한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 북 콘서트는 동



정인화 광양시장이 최근 광양예술창고에서 열린 '그림책을 타고 온 산타' 북 콘서트에 산타 복장을 입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전달했다.

〈광양시 제공〉

화책을 읽고 클래식 공연을 들으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등 인문학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상상력을 길러주는 참신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

다"며 "아이들이 광양예술창고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양홍렬 기자

## 순천 국가정원, 방문객 400만 돌파

### '우주인 놀러오는...' 테마로 수익액 100억 ↑ '행복이 내리는 겨울'로 연말 맞이 준비 착착

순천시 5일 "지난달 29일 기준 순천만국가정원이 재개장 8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수 400만명을 돌파하고 수익액 11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이후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테마로 새롭게 변모한 국가정원은 일일 평균 1~2만명, 휴일에는 4~5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 700여개 기관·단체가 방문했고, 가족 단위 관람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국가정원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시는 최근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준 시민과 관람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 '하늘에서 빛나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드론라이트쇼를 선보였다.

스페이스허브에서 펼쳐진 이번 드론

쇼는 밤하늘이 캔버스가 돼 지상의 정원이 빛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해 행사에 참여한 1만2천여명의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아울러 올해 남은 한 달 겨울 관람객 맞이 위해 '행복이 내리는 겨울,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콘셉트로 겨울 시즌을 아낌없이 준비하고 있다.

겨울정원의 핵심인 화훼 연출로 크리스마스ローズ, 포인세티아 등의 겨울 꽃을 선보이며, 스페이스브릿지와 스카이큐브 순천만역, 어린이동물원 입구 등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연출해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동절기 동안 관람객 안전관리 등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매일 마지막 월요일 정기휴무일을 제외하고 별도 휴장없이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정기자

## 담양읍, 2024 김장나눔대축제 봉사

### 관내 취약계층 500상자 전달

담양군은 "최근 담양읍사무소가 이웃을 위한 2024년 김장나눔대축제 봉사를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 내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담양읍 이장단과 부녀회, 주민자치회, 의소대, 자율방범대, 생활개선, 농가주부, 재향군인여성회, 직접자봉사회, 농촌중심지추진위 등 10

개단체 200여명의 회원이 협력해 4일 동안 김장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은 옥과환우촌 담양점 한돈 85근, 좋은주택만들기, 나눔인테리어의 후원이 이어졌으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유휴농지(삼다2리 내 다마을)를 활용해 정성껏 기른 배추 1천300포기와 무, 채소로 김치를 담가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에 500상자를 전달했다. 〈사진〉 정용오 담양읍이장단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김장나눔봉사에 참여한 사회단체회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종화 담양읍장은 "사회단체가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게 돌봄을 실천하

는 모습을 보여준 매우 뜻깊은 행사로 김장으로 인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정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장흥 '청년 N잡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청년 창업 역량·자기계발 교육

장흥군은 5일 "지난 3일 장흥 청년들의 창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행복 UP 프로젝트', '청년마케터 양성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장흥 청년 N잡러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년들의 창업 역량 및 자기계발을 강화해 장흥에 뿌리 내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청년 창업가가 카페 및 소규모

굿즈 창업, 쿠팡, SNS 등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진행한다.

참가한 수강생은 "도시권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장흥군에서 지원해 줘서 고맙고 열심히 배워 창업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흥군은 타지역 각계각층의 청년을 모아 지역 탐방조사를 통해 군을 알리고, 지역 청년 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흥=노홍렬 기자

##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 '尹대통령 즉각 하야' 성명

고흥군의회는 5일 "전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는 지난 3일 오후 10시24분께 윤석

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려는 중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며 비

상계임을 선포하는데 따른 강력 규탄 입장표명이다.

고흥군의회 전체 의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에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위헌"이라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다시 45년전 군사독재 정권으로 되돌린 반역사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라며 "이를 통해 더 이상 그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하라 ▲국방부장관과 관련 부역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계엄을 계획·실행한 모든 책임자를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